人的情報處理會計에 관한 硏究

A Study on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in Accounting

by Ko Bu-eon

高 富 彦*

目 次

Ⅰ. 序
Ⅱ. 人的情報處理에 관한 心理學的 硏究의 諸 類型
1. 認知領域에 대한 接近方法의 類型化
2. 環境의 複雜性과 槪念水準
Ⅲ. 人的情報處理에 관한 會計學上의 理論的 硏究
1. Lawrence, S. Revsine 의 硏究
2. Henry, C. Miller 의 硏究
Ⅳ. 人的情報處理 會計의 硏究方法
1. Lens 모델
2. 確率的 判斷
3. 事前的 意思決定 行動
4. 認知型
Ⅴ. 結 論

Ⅰ. 序

會計에 있어서 行動的 硏究는 意思決定者가 會計方針을 결정하거나 조언을 해 주거나 監査하거나 그리고 經營管理를 할 때 會計情報를 어떻게 선택하고 評價하느냐 하는 處理過程(process)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行動的 會計는 情報利用者에 대한 정보제공의 기능과 意思決定機能을 통하여 會計와 情報利用者間의 行動的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行動的 意思決定理論은 意思決定理論을 行動科學의 관점에서 다룬 것으로 最近의 會計硏究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이다.

人間行動이 意思決定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行動的 意思決定理論의 한

* 社會科學大學 經營學科 專講

분야로 특히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가 人的情報處理(human information processing 이하 HIP라 한다)의 분야이다. HIP는 원래 人的情報處理心理學(HIP psychology)의 이론과 모형을 이용하여 意思決定過程을 회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硏究를 人的情報處理會計硏究라고 부르기도 한다.[1] 心理學에서 HIP는 人間의 高等精神過程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知覺·記憶·學習·思考·意思決定·動機化등의 心理的문제를 다루는 것이다.[2] 그래서 HIP는 人間을 하나의 情報處理시스템으로 보는 것으로 生動하는 人間行動의 基本시스템을 定立하고자 시도하는 心理學의 새로운 발전적 理論인 것이다.

HIP會計硏究는 意思決定을 心理學的인 지식을 바탕으로 會計的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므로 意思決定者, 會計人, 情報利用者의 心理的 要素가 중요시 된다. 특히 의사결정자의 심리적 요소가 중요시 되고 있는데 이것은 HIP會計硏究의 특색이 과거의 會計硏究와는 달리 人間行動을 중심으로 心理的 관점에서 情報의 處理, 意思決定過程을 파악한다는 점에 있다.

本稿에서는 우선 HIP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會計에 도입되는 경우 기초가 된 心理學的 硏究의 정리를 행하고 HIP와 資料(data) 擴張에 관한 心理學的 硏究를 會計에 도입한 Lawrence S. Revsine [3]과 Henry C. Miller[4]의 論文을 소개한다. 그리고 HIP會計硏究에 사용되고 있는 4가지 硏究方法을 관찰함으로써 會計와 관련된 意思決定의 質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Ⅱ. HIP에 관한 心理學的 硏究의 諸 類型

會計學에서 HIP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진 것은 會計學이 利用者指向의 이론전개를 하는 것으로 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HIP의 영역은 지금까지 會計學 고유의 영역으로서 연구해온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會計學 이외의 諸學問領域(특히 心理學)에서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최근 會計學에서의 HIP시스템 연구도 현재까지는 주로 心理學上 연구성과의 도입을 중심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에 資料擴張(data expansion)과 意思決定에 관련된 것을 살펴 보기로 한다.

---

1) 南相午, 會計理論, 日新社, 1982, p.804.

2) Peter H. Lindsay and Donald A. Norman 著, 李寬鎔, 李泰炯, 鄭福善 共譯, 「心理學槪論 — 人間의 情報處理論 —」, 法文社, 1974. 序文

3) Lawrence, S. Revsine , " Data Expansion and Conceptual Structure " The Accounting Review, Oct. 1970, pp.704～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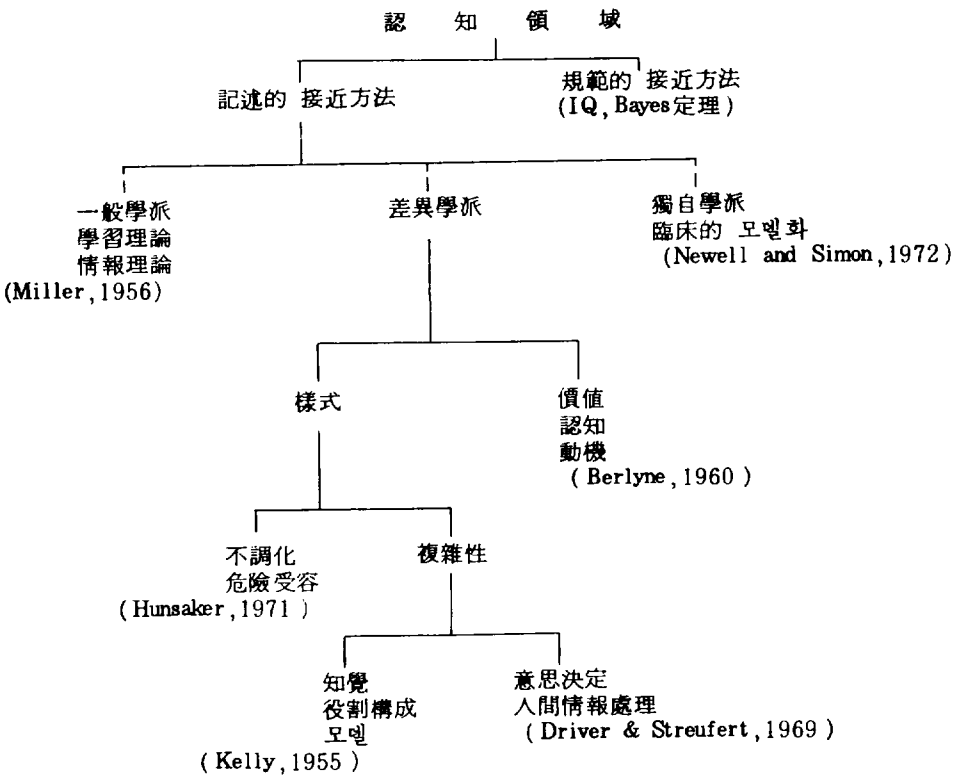
4) Henry, C. Miller , " Environmental Complexity and Financial Reports " The Accounting Review, Jan.1972, pp.31～37.

1. 認知領域에 대한 接近方法의 類型化

HIP는 넓게는 人間의 認知, 또는 思考過程(Cognitive or thinking process)와 직접 관계되므로 이러한 認知領域에 대한 여러가지 接近方法을 類型化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Michael J. Driver와 Theodore J. Mock의 論文[5]을 중심으로 諸接近方法을 살펴 보기로 한다.

Driver와 Mock에 의하면 그림 Ⅱ－1[6]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認知領域(情報處理)에 관한 연

〈그림 Ⅱ－1〉 認知心理學의 領域



5) Michael J. Driver, and Theodore J. Mock,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Decision Style Theory and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75, pp.490～508.
6) ibid, p.493.

구에는 規範的接近方法(normative approach)와 記述的接近方法(descriptive approach)으로 兩分된다. 規範的接近方法은 情報處理의 質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 人間이 얼마나 잘 思考하며 의사결정을 행하는가를 결정하려는 接近方法이다. 대표적인 例로서는 知能檢査 또는 能力測定을 들 수 있다. 그러나 人間의 情報處理能力은 文化的 偏倚와 訓練에 의해 변화될 수도 있으므로 최근 이 接近方法에 대해서는 批判이 많다.

이것에 대해 記述的接近方法은 어떤 절대적인 基準에 反해 思考의 質을 査定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記述的接近方法은 人間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情報를 處理하느냐를 이해하고 측정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記述的接近方法에는 一般學派, 獨自學派, 差異學派의 3가지 類型의 學派가 있다. 一般學派 (generalist school)는 모든 人間은 情報處理를 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同一하며 따라서 人間의 任意標本은 人間全體를 一般化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 때문에 정보처리에 관해서는 個個의 人間사이에 관찰되는 差異는 무의미한 誤差(error)로서 파악된다. 一般學派는 理論의 單純性과 인간의 정보처리에 대하여 많은 有用한 洞察力을 가져다 준다는 有利點이 있으나 個人差를 단순히 誤差로 해석하기 때문에 實踐에의 적용에 곤란한 점이 생기게 된다. 만일 이들 學派의 理論이 妥當한 것이었다면 情報處理에 관한 單一하고 最適인 모델이 오래 전에 定立되었을 것이다. Ackoff (1967)의 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一般學派理論은 점차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7)]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獨自學派(unique school)는 人間은 情報處理方式에 관해 獨自的인 方法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이 學派의 理論은 상당한 수준의 精密性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으나 個個人의 獨自性을 강조하는 나머지 情報處理에 관한 一般化된 原理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결점을 가진다. 獨自學派의 理論에 의하면 會計情報시스템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의 설계에 관해서도 情報利用者의 數만큼 회계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고 實踐性이 인정되지 않는다.

세번째로 差異學派(differential school)가 있다. 이 學派는 인간의 情報處理에 대한 差異를 인정하면서도 유사한 정보처리를 행하는 人間을 몇개의 集團으로 類型化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差異學派는 一般學派의 單純性과 獨自學派의 精密性이라는 兩者의 長點을 전부 受容할 수 있으며 會計情報시스템에 관한 연구에도 適用可能性을 갖고 있는 것으로 주목할만하다.
Driver 와 Mock는 差異學派를 그 연구대상의 구분에 의해 그 위에 몇개의 學派로 類別하고 있으나 本稿에서는 意思決定에 관한 情報量과 HIP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는데 限定하기로 한다. 그러한 연구로서는 Revsine이 會計學에 도입한 이래 會計學에 至大한 영향을 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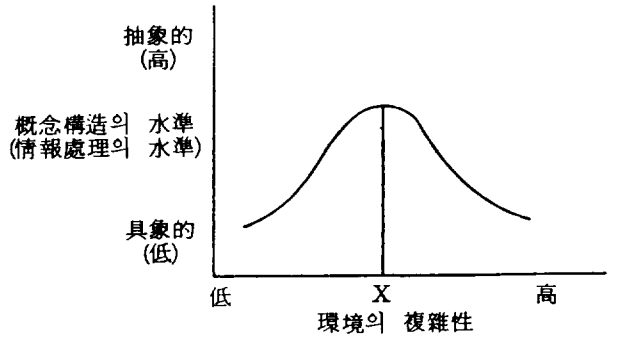
7) Driver & Mock, ibid, p.494.

고 있는 H.M. Schroder, M.J. Driver, S. Streufert의 HIP가 대표적인 文獻이라고 할 수 있다.[8]

2. 環境의 複雜性과 槪念水準

Schroder, Driver, Streufert의 연구는 環境의 複雜性과 槪念構造의 水準(情報處理水準)의 관계를 특히 복잡한 狀況에 있어서 人間의 情報處理에 촛점을 맞춘 연구이며 兩者間의 一般的 관계로서 그림 Ⅱ－2[9]와 같은 逆 U字형 관계가 지적되어 있다.

〈그림 Ⅱ－2〉 環境의 複雜性과 槪念構造와의 一般的 關係



環境의 複雜性(environmental complexity)은 情報負荷(information load), 沮害要因(noxity) 및 促進要因(eucity)이라는 三要素의 集成(aggregation)으로 규정된다.[10] 情報負荷란 情報저장容量과 情報處理容量의 제한으로 인한 消費者의 情報處理의 制約要件을 의미하는데[11] 여기서는 情報集合에 利用가능한 情報量과 意思決定者에 의해 이용되는 情報量을 의미한다. 沮害要因이란 중요한 豫算의 不利한 差異와 같은 실패 또는 위협감을 반영하는 投入(input)에 의한 否定的인 감정의 증가요인이다. 또한 促進要因이란 報酬와 같은 投入에 의한 肯定的인 감정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다.[12] 環境의 複雜性을 구성하는 上記 三要素중에는 情報負荷가 주된 특성이라고 생각되고 沮害要因과 促進要因은 보조적 특성으로 고찰되어 있다.

다음에 槪念構造는 個人이 情報를 受容·저장·處理·傳達하는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槪念構造란 情報에 새로운 속성을 창조하고 認知하는 次元의 數가 증대한 때에 자극을 식

8) 平松一夫「外部情報會計」, 中央經濟社, 1982. p.139.
9) Lawrence S. Revsine, *Replacement Cost Accountting*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3, p.16.
10) 平松一夫, 上揭書, p.140.
11) Henry Assael,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 (Kent Publishing Co., 1984, p.544.
12) Driver and Mock, ibid, p.496.

별하는 것과 個人의 능력에 관련되어 있고 그러한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 概念的構造가 抽象的(abstract)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概念構造가 具象的(concrete)이라고 말하는 것이다.[13] 그 때문에 概念構造의 水準은 직접 情報處理의 水準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그림 Ⅱ－2에서 나타난 環境의 複雜性과 概念構造의 水準과의 사이의 一般的 관계를 살펴 보기로 하자. 그림 Ⅱ－2에서는 環境의 複雜性은 最適點(X)로 概念構造가 最大의 抽象度에 달하는 것이 圖示되어 있다. 최적점보다 左側에서는 環境의 複雜性은 낮고 概念構造의 水準(情報處理의 水準)도 낮아진다.

이것에 대해 Schroder, Driver, Streufert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多樣하고 多次元을 제공하지 못하는 과도하고 단순한 環境은 統合 process에 대한 자극으로 될 수 없다. 즉 그러한 環境에서는 단순한 概念構造로 충분한 것이다."[14] 여기에 반해 최적점보다 右側에서 環境의 複雜性은 높으나 概念構造의 水準은 낮아진다. 즉 "과도하게 多樣하고 多次元을 갖는 情報를 제공하는 복잡한 環境은 情報處理의 복잡한 規則의 창조성을 감소시키고 이것과 관련된 識別과 統合의 水準을 저하시킨다"[15] 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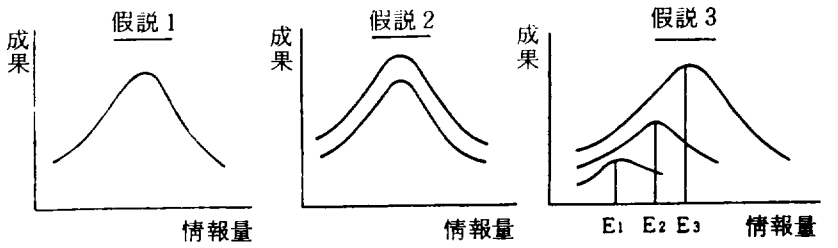
前述한 一般學派의 입장에서는 上記의 논술로 충분하나 差異學派의 입장인 경우 중요한 것은 오히려 個個人의 概念構造水準이 相異한 것에 의해 情報處理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이다. 이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 差異學派는 個個人을 그 概念構造가 抽象的이냐 또는 具象的이냐에 의해서 決定型(decisive style), 彈力型(flexible style), 階層型(hierarchic style), 統合型(integrative style), 複合型(complex style)의 5가지로 미리 구분하기도 하나[16] 그러한 區分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복잡하고 탄력적인 概要내에서 훌륭하게 識別을 행할 수 있는 人間은 抽象的 概念構造를 갖는다고 생각되며 일련의 固定的 規則에 따라 情報를 처리하고 갈등이나 曖昧함(ambiguity)을 思考로부터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은 具象的인 概念構造를 갖는다고 생각된다.[17] 이와 같이 個個人을 抽象的 概念構造를 갖는 人間(이하 抽象的 情報利用者라 한다)과 具象的 概念構造를 갖는 人間(이하 具象的 情報利用者라 한다)으로 구분하는 경우 前者가 後者보다도 더 효율적인 情報處理를 행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Streufert 等(1965)은 戰術的 戰爭게임(tactical war game)이라는 實驗室實驗에 의해 다음 3개의 假說을 검증하려고 했다.[18] (그림 Ⅱ－3 참조)

---

13) Henry Miller, ibid, p.32.
14) 平松一夫, 上揭書, p.140.
15) 上揭書, p.141.
16) Driver & Mock, ibid, pp.497～498.
17) Henry Miller, ibid, p.32.
18) 平松一夫, 上揭書, p.142.

〈 그림 Ⅱ－3 〉　　Streufert 등의 假說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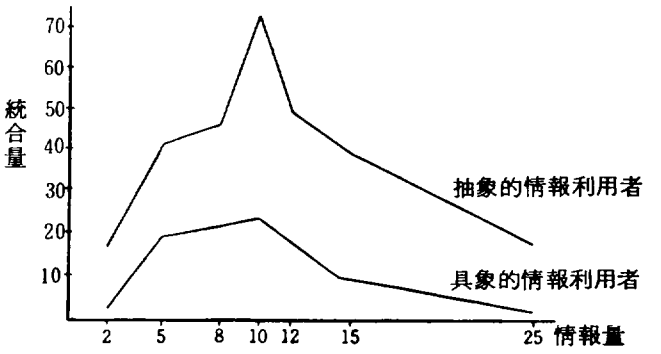
假說 1 : 行動에 포함되는 統合量(成果)은 最適成果點에 도달하기까지에는 情報量의 증가에 따라 증대한다. 최적점을 초과하여 그 이상 정보량이 증가하면 統合量은 감소한다. (이것은 그림 Ⅱ－2에서 나타난 것과 같다)[19]

假說 2 : 槪念構造에 있어서 集團간의 차이는 情報量과 成果에 관련되는 함수(function)를 규정하는 일련의 곡선으로 記述된다. 集團構成員의 槪念構造가 抽象的일수록 集團成果에 관한 統合水準은 높아진다.

假說 3 : 槪念構造에 있어서 集團간의 차이는 情報量에 있어서 成果의 최적점이 다르게 됨에 따라 나타난다. 抽象的 槪念構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는 集團은 具象的인 槪念構造를 갖는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는 集團보다도 복잡한 環境에서 最適點에 도달한다고 기대된다.

Streufert 등의 實證的 硏究結果는 그림 Ⅱ－4에 나타나고 있다.[20] 그림 Ⅱ－4로부터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假說1과 假說2는 實驗에 의해 支持를 받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으나 假說3을 支持하는 증거는 이 實驗에서 얻지 못하고 있다.

〈 그림 Ⅱ－4 〉　　Streufert 등의 實驗結果



19) 그림 Ⅱ－2에서는 從축이 情報處理水準이 되어 있지만 이 假說1에서는 統合量(成果)이 되어있다.
20) 平松一夫, 上揭書, p.142.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假說 3에 대해 否定的 증거를 도출한 實驗의 특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前述한 戰術的戰爭게임에서 情報利用者에게는 일방적으로 情報가 주어지고 스스로 탐색할 수 없는 狀況이 설정되어 있었다. 환언하면 情報利用者의 環境이 恒常的(constant)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현실과 같이 情報利用者가 자유롭게 情報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選擇的(chosen) 環境인 경우에는 假說 3에 대한 思考를 修正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Bruce W. Tuckman (1964)의 硏究에 의하면 抽象的 情報利用者는 具象的 情報利用者 보다도 많은 情報를 要求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21] 따라서 情報利用者의 環境이 恒常的이냐 또는 選擇的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意義를 갖는다고 하겠다.

Ⅲ. HIP에 관한 會計學上의 理論的 硏究

1. Lawrence S. Revsine의 硏究

앞에서 살펴본 環境의 複雜性과 槪念構造의 水準에 관한 心理學의 硏究成果를 會計學에 도입하고 資料擴張接近方法에 대한 制約的意義를 논한 최초의 會計學者가 Lawrence S. Revsine이다.[22]

Revsine에 의하면 外部報告에 있어서 資料擴張이 강조되는 근거는 "會計情報利用者의 意思決定모델에 관한 상세한 지식의 결핍이다"[23]는 것이다. 그렇지만 심리학자들은 人間의 意思決定의 一般的 特性에 대해 有用한 洞察力(insight)을 제공하며 이것은 外部財務報告시스템 設計에 상당한 重要性을 가지고 있으나 會計學에서는 어느 정도 무시되어왔다. 그래서 Revsine은 그림 Ⅱ－2에서 나타나고 있는 環境의 複雜性과 槪念構造水準과의 一般的 關係를 會計에 適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推論하고 있다.[24]

1) 經濟的 事件들은 복잡한 諸現象의 결과이다. 어떤 一定한 事象(events)에 대한 해석은 그 事象이 일으키는 상황에 의존하여 變化할 수 있다. 이러한 形態의 多次元環境은 定義에 의해 "복잡한(complex)"것으로 생각된다.

2) 財務環境이 복잡하면 財務諸表利用者는 效率的 意思決定에 필요한 諸變數(variables) 間의 복잡한 관계를 인식하기위해 어느 정도 抽象的이고 槪念的인 技術을 필요로 한다.

---

21) 平松一夫, 上揭書, p.143.
22) Lawrence S. Revsine, "Data Expansion and Conceptual Structure," The Accounting Review, Oct. 1970, pp.704～711.
23) Revsine (1970), ibid, p.705.
24) ibid, p.707.

3) 外部利用者가 企業의 計量化된 財務的 微視環境(micro－environment)을 인식하기 위한 主要한 手段은 會計報告書이다.

4) 새롭고 目的適合한 資料를 갖는 傳統的인 歷史的原價主義報告書에 대한 論爭은 財務環境에 보다 많은 次元을 추가하게 되고 定義에 의해 인식된 環境複雜性을 증대시키게 된다.

여기서 Revsine이 記述하는바와 같이 財務報告에 있어서 資料擴張은 利用者에 대한 環境複雜性의 程度에도 불구하고 不變한다면 資料擴張에 의한 會計上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Schroder, Driver, Streufert의 硏究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環境複雜性과 槪念構造의 水準사이에는 그림Ⅱ－2와 같은 一般的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Revsine은 財務報告環境을 Schroder, Driver, Streufert의 硏究와 관련시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 現行의 財務報告書에 의한 環境의 複雜性이 그림Ⅱ－2의 最適點(X) 혹은 최적점보다 右側에 있다면 그 以上으로 資料를 擴張하는 것은 비록 그 추가적 資料가 目的適合性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利用者의 槪念構造의 水準을 저하시키고 意思決定效率을 감퇴시키게 된다.[25] 또한 環境複雜性이 최적점보다 左側에 있으면 최적점까지 擴張하는 것이 意思決定效率을 증가시키지만 資料를 어느 정도 추가하느냐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며 추가資料의 選擇基準(selection criteria)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26]

그런데 資料擴張論者인 George H. Sorter에 의하면 "다양한 財務的 營業活動事象에 관한 情報가 會計報告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情報가 많은 意思決定모델에 대하여 目的適合性을 갖는다고 결정하면 그만이다. 利益評價모델에서 이 情報의 加重値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정당화할 필요는 없다"[27] 그러나 上記한 Revsine의 主張에 의해 Sorter의 表明은 情報利用者에 대한 資料擴張의 制約을 고려에 넣지 않았다는 점에서 批判되어진다.

이와 같이 Revsine은 HIP의 心理學的硏究를 도입함으로써 資料擴張接近方法이 갖는 重大한 制約點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Revsine은 心理學的 硏究를 무조건 會計에 도입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실증적으로 檢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Revsin의 주장이 회계학에서 妥當한 것이라고 한다면 資料擴張을 위해서 資料의 選擇基準이 필요하다. 이 경우 선택기준으로서 目的適合性만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가장 有用한 情報를 선택하기 위한 補充選擇基準(supplemental selection criteria)이 필요하며 또한 利用者의 意思決定모델과 잠재적 資料欲求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불가결하다고 그는 記述하고 있다.[28]

---

25) ibid, p.709.
26) ibid, p.710.
27) George H. Sorter, "An 'Events' Approach to Basic Accounting Theory," The Accounting Review, Jan. 1969, p.14.
28) ibid, p.711.

그런데 會計學에서 情報過多가 利用者에게 有用하기 보다도 有害할 수도 있다라는 指摘은 Revsine 이 최초로 행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Eldon S. Hendriksen 은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過多한 情報는 有害하다. 즉 사소한 情報가 중요한 情報를 은폐시키게 되고 또 財務報告書의 理解를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Revsine 의 硏究에 주목하는 것은 그가 종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도 등한시 되어온 HIP의 理論을 적용하고 해명하려고 했던 점에있다. 그런 의미에서 Revsine 의 硏究는 會計學에 있어서 HIP의 선구적業績으로서 意義가 인정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2. Henry C. Miller 의 硏究

그런데 前述한 Revsine 의 硏究를 다시 전개한 것으로 주목되는 것이 H.C. Miller 의 論文이다. [30] Miller 의 연구내용을 고찰하기 전에 우선 Revsine 의 연구와의 관계를 명백히 할려고 한다.

Miller 의 입장은 槪念構造와 環境複雜性 그 어느 것의 연구에 있어서도 Revsine 과는 달리하고 있다. 槪念構造에 대해서 Revsine 이 一般學派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抽象的 情報利用者와 具象的 情報利用者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것에 反해 Miller 는 差異學派의 입장에 서서 抽象的 情報利用者와 具象的 情報利用者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Miller 의 硏究가 會計情報시스템설계에서 意義있는 結果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에 環境複雜性에 대해서 Revsine 이 恒常的(constant) 環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反해 Miller 는 選擇的(chosen) 環境이 財務報告環境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Miller 는 差異學派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環境複雜性과 槪念構造의 水準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Revsine 에 의해 기술된 기본적인 관계는 사실상 두개의 개별적 집단관계중의 한개를 集成하고 있다 (그림 Ⅱ－2 참조). 또한 이들 관계는 그림 Ⅱ－3의 假說 2, 假說 3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假說 2에 있어서 동일한 環境내에서는 抽象的 情報利用者와 具象的 情報利用者의 어느쪽에 대해서도 모든 槪念構造에 대한 最適點은 一定(constant)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 Miller 에 의하면 만일 財務報告에 있어서 이러한 關係가 존재한다면 環境複雜性과 같은 最適情報負荷(optimal information load)를 發見하는 것이 可能하다고 고찰된다. [32] 이것에 대해 假說 3에 있어서는 抽象的情報利用者에 대한 環境複雜性의 最適點이 具象的 情報利用者에

29) 金亨柱, 會計基礎理論, 法文社, 1985, p.349.
30) Henry C. Miller , " Environmental Complexity and Financial Reports," The Accounting Review, Jan.1972, pp.31～37.
31) 平松一夫, 上揭書, p.147.
32) Henry Miller, ibid, p.33.

대한 最適點보다 높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다. 즉 環境의 變化를 통해 최적점에 도달할려고 하기 때문에 選擇的 環境을 중요시 여기게 된다. 만일 財務報告에 있어서 이 관계가 존재한다면 共通의 최적점은 發見할 수 없으므로 財務意思決定을 容易하게 하기 위한 會計人의 目標는 성취하기가 어렵게 된다.[33]

Miller가 假說3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는 것은 財務報告環境은 情報利用者에게는 恒常的環境이 아니고 選擇的環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Streufert 등의 戰術的 戰爭게임에서 情報利用者에 대한 環境은 恒常的이었다. 거기서의 環境은 Miller가 記述한대로 "모든 참가자가 본질적으로 同一의 代替案에 직면하여 同一의 情報를 받아들인다는 비교적 限定된 活動範圍를 제공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34] 이것을 財務報告環境에 적용하게 되면 모든 財務諸表利用者의 情報環境은 잠재적으로 同一하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실의 財務報告環境에서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情報利用者는 會計人, 財務分析家, 新聞, 株式중매인, 기타 投資機關으로부터 여러가지 情報를 선택해서 入手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Miller는 財務報告環境이 選擇的이라고 指摘하면서 選擇的環境下에서 抽象的 情報利用者는 具象的 情報利用者보다도 더 많은 情報를 탐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假說3이 成立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35]

上記와 같은 論理를 전개한 다음 Miller는 그러한 論理가 갖는 意義로서 이하 3가지 點을 指摘하고 있다.

첫째 Revsine이 記述한 것처럼 資料擴張論者인 Sorter가 주장하는 無制限 資料擴張이 情報利用者의 槪念構造水準을 低下시키는 것이다. 選擇的 環境에서는 假說3에서 표시되는 것과 같이 個個人의 槪念構造水準에 의해 最適環境의 複雜性이 다르므로 財務報告에 대해 어떤 槪念構造를 갖는 情報利用者를 전제로 最適環境을 선택할 것이냐가 문제로 된다. 이 點에 대해 Miller는 高度로 抽象的 情報利用者로 인정되는 財務分析家는 入手된 情報를 여과(filter)시킬 수 있으므로 최적환경의 선택이 충분하다고 記述하고 있다.[36] 外部報告處理過程에서 中間매개인(intermediary)의 역할을 하는 財務分析家의 任務를 調査함으로써 이 선택에 대한 필요성이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財務分析家라는 抽象的 情報利用者를 선택하는 것은 具象的 情報利用者에 대한 教育效果가 있다는 점에서도 有益하다고 하겠다.

둘째 外部報告環境이 현재로서는 最適點以下(suboptimal)라는 것이다. Schroder, Driver, Streufert의 연구에 의하면 抽象的 情報利用者는 最適點에 도달할 때까지는 보다 많은 情報를

33) ibid, p.34.
34) 平松一夫, 上揭書, p.147.
35) 上揭書, p.148.
36) Henry Miller, ibid, p.35.

選好하고 최적점을 넘으면 情報選好가 급격히 감소된다. 이에 反하여 具象的 情報利用者는 概念構造水準이 낮기때문에 最適點을 초과하여도 보다 많은 情報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37]

세째 Miller는 假說을 실증적으로 檢證하기 위해 다음 접근방법을 취할 것을 提示하고 있다.[38]

가) 情報利用者가 Schroder, Driver, Streufert의 硏究에 의해 記述된 것과 유사한 情報處理特性을 보이느냐의 여부를 결정하고 情報利用者가 活動하고 있는 環境이 恒常的인가 選擇的인가를 결정한다.

나) 만일 環境이 선택적이라고 한다면 財務分析家가 실제로 抽象的 概念構造를 보이는지 여부와 最適點으로 向하는 그들의 행동에 변동하는 情報形態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檢證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Miller는 이러한 實證的 硏究가 目的適合性의 測定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서 행해져야 한다고 記述하고 있다.[39]

Ⅳ. HIP 會計硏究方法

전통적인 會計에서는 利用者指向的(user-oriented)인 側面이 강조되어 왔으며 行動科學會計에서도 너무나도 특수한 문제에 관하여 硏究가 행해져 一般性을 갖지 못하고 있다. Robert Libby와 Barry L. Lewis는 行動科學會計硏究에 보편성을 주기위해 他分野-心理學-에서 행해져 내려온 人間行動의 理論 및 方法論의 연구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HIP會計硏究方法으로서 ①렌즈모델 ②確率的 判斷 ③意思決定前行動 ④認知型態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40] 이하에서는 lens 모델을 중심으로 네가지 연구방법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렌즈모델 (lens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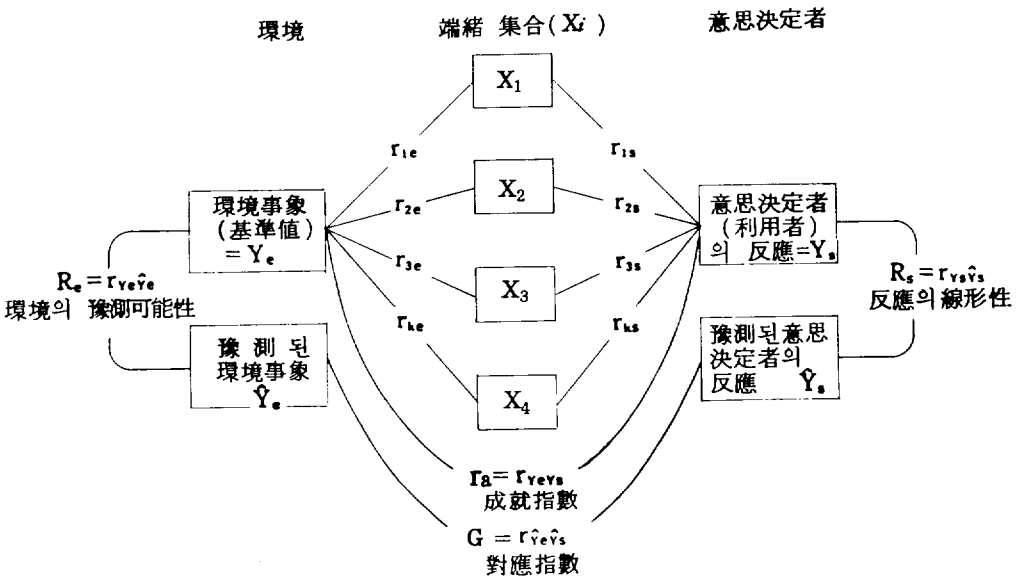
lens 모델이 會計學文獻에 등장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41] 그러나 心理學의 分野에서는

37) 平松一夫, 上揭書, p.148.
38) Henry Miller, p.37.
39) ibid, p.37.
40) Robert Libby & Barry L. Lewis,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in Accounting: The State of Art,"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2, No.3, 1977, pp.245~268.
Robert Libby & Barry L. Lewis,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in Accounting: The State of Art in 1982,"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7, No.3, 1982, pp.231~285.
41) AAA "Committee on Accounting Valuation Bases, Report of the Committee on Accounting Valuation Bases," The Accounting Review, Supplement, 1972.

소위 確率論的 函數主義를 주창한 E. Brunswik가 1952年과 1956年에 環境變數와 個人的特性變數사이의 相互依存性을 명확하게 인식하기위해 렌즈모델파라다임(lens model paradigm)을 제안했다. 이것은 心理學의 영역에서 認知理論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며 意思決定者의 情報處理活動을 볼록렌즈에 비교하여 설명하는점에 그 특징이 있다. lens 모델은 일반적으로 그림Ⅳ－1으로 나타내진다.[42]

그림Ⅳ－1에서 나타나는 lens 모델은 心理學의 영역에서는 Brunswik's lens model 이라고 불리워지며 다음과 같은 3개의 要素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Ⅳ－1〉 lens model



(1) 端緖(cue) ($X_1, X_2, \cdots\cdots, X_k$)에 의해서 나타나는 環境

(2) 모델의 左側에 있는 環境事象 혹은 基準事象(Y_e)

(3) 모델의 右側에 있는 意思決定者의 反應($\hat{Y}_s$)

42) Robert Libby, Accounting and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 Theory and Applications, Prentice-Hall, Inc 1981 p.19.
lens 모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수도 있다. 다만 단순한 정보처리 모델은 다음 그림과 같이 보여지지만 이것은 lens model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input ⟶ process ⟶ output ⟶

Ⅰ 정보집합 Ⅱ 판단자(의사결정자) Ⅲ 판단-예측-결정

이것은 그림Ⅳ－1에서 나타난 lens 모델에 대응하고 있다. 즉 input되는 것은 lens모델의 단서(cue set) 혹은 정보를 나타내는 X_1, $X_2 \cdots X_k$에 해당되고 정보처리 및 output는 lens model의 우측, 좌측에 나타나는 의사결정자와 환경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cf. Robert Libby & Barry L. Lewis (1977), ibid.,p.247, Robert Libby(1981), ibid, p.8.

이것으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情報利用과 豫測能力과의 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즉 意思決定者가 不確實한 狀況下에서 어떤 事象(events)에 대하여 예측할 때 어떤 環境의 情報 — 그 環境事象과 確率的으로 關聯되어 있는 — 에 기초를 두고 의사결정을 행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上記 3개의 諸要素를 구체적인 例를들어 살펴보기로 한다.[43] 지금 어떤 企業의 財務的情報 — 財務諸表로부터 얻어지는 — 와 그 기업의 狀況을 나타내는 非財務的情報 — 市場占有率 및 成長率등 — 로부터 그 기업의 3년후의 전망을 예측한다고 假定하자. 3년후의 상태는 예컨대 現在의 業界에서의 位置 — 賣出額, 利益 및 市場占有率등을 고려한 것 — 와 비교해서 ①低下했다 ②같다 ③上昇했다 와 같이 예측될 것이다. 다음에 豫測者 혹은 判斷을 하는 主體者가 문제가 된다. 결국 이것은 누가 3년후 후의 상태를 예측하느냐라는 문제인데 豫測이란 一定한 情報에 기초를 두어 행하는 것이므로 豫測者는 意思決定者라고 볼 수 있다.

이 例를 이미 기술한 lens 모델의 3개 要素에 적용해 보면 우선 X로 표시한 端緖는 企業의 財務的情報 및 그 이외의 指標이다. 그리고 모델의 左側에 있는 環境事象(Y_e), 右側에 있는 意思決定者의 反應(Y_s)는 각각 이 例에 있어서 3년후의 실제의 상태 — 결국 ①, ②, ③ 어느 것이냐 — 와 意思決定者의 豫測 — 이것도 역시 ①, ②, ③의 形態로 표시된다 — 에 相應한다. 環境事象(Y_e)와 意思決定者의 反應(Y_s)의 차이는 Y_e 와 端緖 X와의 사이에 完全한 相關關係가 없는 한 당연히 발생하지만 그 이외에도 意思決定者가 端緖(情報)를 利用할 때 環境에 관해 不適合한것도 要因이 된다.

Y_e 와 X_i 와의 관계(rie)는 相關係數로 표시되며 妥當性係數(validity coefficient)[44]라고 불리우며 또 生態的妥當性(ecological validity)이라고도 한다. 즉 이것은 環境事象 Y_e 를 豫測하기위해 i 번째의 端緖(情報)가 어느 정도 관련하고 있는 가를 표시한다. 따라서 Y_e 와 모든 端緖 사이의 多變量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線型回歸方程式이 나타난다.

$$\hat{Y}_e = a_e + b_{1e}X_1 + b_{2e}X_2 + \cdots\cdots + b_{ke}X_k \qquad \cdots\cdots (1)$$
$$Y_e = \hat{Y}_e + U_e$$

여기서 a_e, b_{1e}, b_{2e}, …… b_{ke} 는 회귀방정식 (1)의 母數이고[45] U_e 는 誤差項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두번째의 式으로부터 環境事象(基準値) Y_e 와 端緖 X_i 와의 관계는 최초의 방정

43) 佐藤康男, 管理會計と 行動科學 : その意味と 方法論的 特徵, 經營志林 제 21권 제 1호, 早稻田 法政大學 經營學會, 1983. pp.40~41.

44) 佐藤康男, 上揭書, p.43.
「입학후의 학업성적과 진학적성검사의 득점과의 상관계수와 같이 기준이 되는 變量과 test 득점과의 상관계수를 타당성계수라고 부르며 test의 타당성 특히 예측적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쓰여진다」

45) 여기서 a, b의 첨수 e는 변수 $\hat{Y}$를 대표하고 b_{1e} 는 변수 X_i ($i = 2, 3 \cdots\cdots k$)가 일정할때 X_1의 변화에 의해 생기는 Y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식으로부터 얻어지는 環境事象의 豫測値 $\hat{Y}_e$ 와 Y_e 의 상관관계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값($R_e = r_{Ye\hat{Y}e}$)는 環境의 豫測可能性 (environmental predictability) 이라고 불리워지며 環境事象을 豫測하기위해 端緖(情報)가 어느정도의 目的適合性(relevance)를 갖고 있느냐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lens 모델의 右側에 있는 意思決定者의 反應(Y_s)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있다. 意思決定者가 個個의 端緖에 어느정도 의존하느냐는 그들의 相關係數(r_{is})에 의해 測定되며 그 값은 效用係數(Utilization coefficient)라고 불리워진다. 물론 效用係數는 $-1 \leqq r_{is} \leqq 1$의 범위에 있고 意思決定者가 端緖를 무시하거나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는 0가 된다.[46]

端緖 X와 意思決定者의 反應 Y_s 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線型回歸方程式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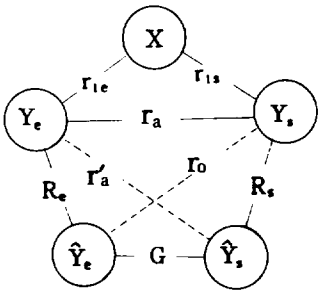
$$\hat{Y}_s = a_s + b_{1s}X_1 + b_{2s}X_2 + \cdots\cdots + b_{ks}X_k \qquad \cdots\cdots (2)$$
$$Y_s = \hat{Y}_s + U_s$$

즉 의사결정자의 豫測된 反應($\hat{Y}_s$)과 실제의 反應(Y_s)과의 사이에 있는 相關係數 ($R_s = r_{Ys\hat{Y}s}$)는 反應의 線型性(response linearity)이라 불리우며 이 값은 判斷의 豫測可能性을 나타내고 있다. 意思決定者가 環境에 대해 情報의 加重値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1), (2) 2개의 回歸方程式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이들 2개의 方程式의 相關關係를 표시하는 對應指數(matching index)가 사용된다. 이 값($G = r_{\hat{Y}e\hat{Y}s}$)는 情報의 加重値(weight) 혹은 利用者의 精度(accuracy)를 나타내는 전반적인 尺度이다.

또한 意思決定者의 業績－判斷의 適否－는 成就指數(achievement index)에 의해 나타난다. 이 값 ($r_a = r_{YeYs}$)는 意思決定의 主體者(判斷者)의 反應과 環境事象과의 對應性(correspondence)을 표시하고 意思決定의 正確性을 나타내는 尺度이며 lens 모델로부터 얻어지는 최종적인 결과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lens 모델에서는 6개의 相關係數(指數)가 사용되었고 이것이 이 모델의 기본적인 思考를 표시하고 있다. 이것들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47]

〈 그림Ⅳ－2 〉 意思決定의 諸要素와 그 相關關係



* 點線으로 보이고 있는部分 그림Ⅳ－1에 포함되어있지 않는 部分

46) Robert Libby(1981), ibid, p.20.
47) 佐藤康男, 上揭書, p.42.

그림Ⅳ－2에서 나타난 指標중 Y_e와 Y_s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r_a', Y_s와 Y_e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r_o는 지금까지 lens 모델의 설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r_a' ($r_{\hat{Y}_e Y_s}$)는 (1) 및 (2)의 回歸方程式에 나타나는 意思決定者의 豫測判斷이 실제의 環境基準을 어느 정도로 豫測할 수 있느냐를 표시하고 있다.[48] 그것에 대해 r_o ($r_{\hat{Y}_e Y_s}$)는 意思決定者의 反應과 環境基準(回歸方程式에 의한)의 豫測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最適指數(optimality index) 라고도 한다.

다음에 lens 모델 방정식이라고 불리우는 r_a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lens 모델의 최종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미 記述한바와 같이 成就指數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지만 다른 要素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49]

$$r_a = G\, R_e\, R_s \qquad \cdots\cdots (3)$$

단 G : 情報加重値의 正確度

R_e : 環境의 豫測可能性 또는 情報의 豫測能力

R_s : 反應의 線型性 또는 意思決定者의 豫測能力

이것으로 알 수있는바와 같이 成就指數(r_a)는 3개의 要素로 표시되어 있다. 보통 意思決定者는 完全한 豫測能力을 갖고 있지않으므로 $R_s < 1$이다. 또한 環境事象도 완전하게 豫測할 수는 없으므로 $R_e < 1$일 것이다. 결국은 대부분의 意思決定者는 事後 最適加重値戰略 (ex post optimal weighting strategy)사용을 할수 없기때문에 G도 또한 1보다 작을것이다.[50]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意思決定 혹은 判斷의 業績을 나타내는 成就指數 r_a는 특히 높게는 되지 않는다. 이 lens 모델방정식은 行해진 判斷이 어느정도 달성되느냐의 期待를 나타낼뿐만아니라 최적하지 않은 行動의 原因도 명백하게 설명해 주기때문에 意思決定分析에 有用하다고 하겠다.

---

48) 이 값은 「人間對 모델」을 고찰할때 중요하다. 「인간 대 모델」이란 의사결정자가 행한 판단의 업적 一適, 否—를 그 근본이 된 모델과 비교하는 것이다.
cf. Robert H. Ashton,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in Accounting AAA, 1982, chapter 3, pp.30～53.

49) 成就指數 r_a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것이 증명되어 있고 이것이 lens모델 방정식이라고 불리워지는 일도 있다. $r_a = G\, R_e R_s + C\sqrt{1-R_e^2}\ \sqrt{1-R_s^2}$ 여기서 C는 회귀방정식 (1), (2)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결국 U_e와 U_s—의 차이가 표시하는 殘差들간의 상관관계이고 정보(X_i)의 영향을 제거할때 Y_e와 Y_s 사이의 部分相關係數이다.
cf. Robert H. Ashton, ibid, pp.17～18.

50) 어떤 대상에 관하여 여러가지 정보의 加重値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문제는 lens모델의 최종적인 결과의 판단에 큰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떠한 加重値가 최적이냐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는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최적가중치는 사후의 정보와 비교해서 비로소 판명되는 것이다. Robert Libby (1981), ibid, p.21.

lens 모델을 이용한 初期의 會計意思決定問題는 Russell M. Barefield (1972),[51] James R. Boatsman and Jack C. Robertson (1974),[52] Edward J. Joyce (1976)[53]을 중심으로 ①重要性 (materiality)의 決定 ②內部統制의 評價 ③財務諸表資料의 分析 등에 관하여 HIP에 대한 情報環境變化의 영향을 조사하는 硏究가 이루어 졌으나 後期에는 ①判斷處理에 있어서 相異한 端緖의 加重値(相對的 重要性)과 意思決定者의 意見一致(consensus)를 조사하는 policy capturing ②判斷의 正確性評價 ③成就와 學習에 관한 課業特性의 效果에 관한 調査 硏究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 確率的判斷 (Probability judgement)

意思決定에 있어서 情報의 利用을 연구하는데 사용되는 두번째 방법은 個人의 主觀的 確率判斷을 형성하는 방법에 촛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Bayes의 定理를 사용하는 연구와 Heuristics (問題發見的方式)을 사용하는 연구로 나누어 진다.[54] lens 모델은 確率的 環境에 있어서 諸關係를 평가하는데 있어 相關分析을 이용한 것이지만 條件附確率을 사용하면 Bayes 定理에 입각한 理論이 전개된다. Bayes 定理는 잘 알려져 있으나 여기서는 Slovic과 Lichtenstein의 설명을 소개하기로 한다.[55]

몇개의 相互 排反的으로 충분한 假說H_i와 資料D가 주어지는 경우 Bayes 定理는 다음 式으로 나타낼 수 있다.

$$P(H_i / D) = \frac{P(D/H_i)\ P(H_i)}{\sum_i P(D/H_i)\ P(H_i)} \quad \cdots\cdots (4)$$

방정식 (4)에서 $P(H_i/D)$는 事前資料와 함께 새로운 資料 D를 고려에 넣은 경우에 H_i가 참(眞)인 事後確率이다. $P(D/H_i)$는 H_i가 참인 경우에 資料D가 관찰할 수 있는 條件附確

51) Russell M. Barefield, "The Effect of Aggregation on Decision Making Success : A Laboratory Stud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72. pp.229~242.
cf. 安逸濤, "重要性, 公示決定에 있어서 專門監査人의 判斷에 관한 硏究 (I), 祥明經營論集 第2輯, 祥明女子大學 經營學會, 1985.11, p.140.

52) James R. Boatsman and Jack C. Robertson, "Policy-Capturing on Selected Materiality Judgement," The Accouting Review, April 1974, pp.342~352.
cf. 安逸濤, 上揭書, p.125. p.141.

53) Edward J. Joyce, "Expert Judgement in Audit Program Planning," Supplement of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976, pp.29~60.
cf. 安逸濤, 上揭書, p.141.

54) Libby and Lewis (1977), ibid, pp.255~256.

55) 平松一夫, 上揭書, p.194.

率이다. 相互 排反的인 假說 H_i의 집합에 대해 $P(D/H_i)$의 값은 각각의 假說에 대한 資料 D의 영향을 나타낸다. $P(H_i)$의 값은 가설 H_i의 事前確率이다. 이것도 또 D를 얻기전에 入手可能한 모든 情報를 조건으로 하는 H_i의 確率을 나타내는 條件附確率이다.

다음에 Heuristics는 엄밀한 理論的 기초를 갖고 있지 않는 아주 조잡한 經驗的 方法에 의한 判斷을 의미하는 것이다. Bayes定理는 端緖의 이용을 측정하기 위한 規範的基準으로서 사용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人間은 그 能力에 한계가 있고 合理的인 確率判斷을 하기보다는 Bayes定理를 따르지 않는 단순화된 Heuristics를 사용하게 된다. Amos Tversky와 Daniel Kahmenan에 의하면 不確實性下의 判斷에서는 다음 3가지 Heuristics의 方法이 사용되어 진다.[56]

① 代表性(representativeness) : 많은 確率의 문제는 어떤 事象A가 區分B에 속하는 확률은 얼마인가 하는 종류의 것이고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A가 B를 代表하는 정도 내지는 A가 B에 類似하는 정도(즉 代表性)에 의해서 確率을 평가하는 方法

② 利用可能性(availability) : 어떤 區分이 생기는 頻度數 또는 어떤 事象이 발생하는 확률을 그와 같은 發生을 생각해 내기쉬운 정도(즉 利用可能性)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

③ 修正과 繫留(adjustment and anchoring) : 確率의 推定을 행하는데 初期의 값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수정해가고 최종적인 값에 이르는 방법

이들 Heuristics 방법은 아직 충분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느것도 體系的인 偏倚(Systematic bias)를 수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確率的判斷接近方法에서는 各端緖가 순차적으로 평가되어서 未來事象의 確率이 修正이 되는 連續的 process로서 情報處理가 槪念化되어 있다. 이러한 接近方法은 情報集合의 變化가 端緖의 利用에 미치는 影響과 最適反應으로부터 偏差의 評價에 특히 有用하다는 것이다.[57] 그래서 心理學에서는 우선 個人의 실제 행동을 規範的모델로 해서 Bayes定理와 비교한다는 記述的硏究로 시작되어 후에 人間의 情報處理能力의 限界때문에 의사결정자가 사용하는 Heuristics의 연구가 행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58]

최근 確率的判斷接近方法을 이용하는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多樣性을 반영하고 있다.[59]

① 主觀的確率을 도출하기위해 이용된 技法의 選擇

② common heuristics와 blases를 확인하고 평가하려는 시도와 情報評價者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意思決定者의 能力을 檢證하는 조사연구

③ 專門的判斷(expert judgement)을 조사하기 위한 틀(frame work)로서 規範的意思決定모델의 이용

56) 平松一夫, 上揭書, pp.194～195.
57) Libby and Lewis (1977), p.254.
58) ibid, p.255.
59) Libby and Lewis (1982), p.251.

3. 意思決定前行動 (Predecisional behavior)

대부분 lens 모델과 確率的判斷에서 사용된 技法은 機能的關係를 나타내는 投入(input)과 産出(output)을 測定해왔다. 그러나 意思決定前行動의 파라다임(paradigm)에 의한 연구는 意思決定에 포함된 連續的 또는 段階的 過程에 대하여 詳細한 情報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60]

이 接近方法은 컴퓨터 處理와 人的情報處理간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人間이 지니는 問題解決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 Newell과 Simon (1972)에 의해 개발되었다. 또한 John W. Payne, Myron L. Braunstein, John S. Carroll (1978)은 個人이 특별한 선택 또는 判斷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情報處理行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言語調書(verbal protocols) 分析과 情報探索尺度分析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過程의 추적기법(process tracing technique)을 例示할려고 시도했다.[61]

最近의 硏究에서는 專門家에 의해 사용된 情報探索과 端緖結合戰略의 檢證 및 숙달된 戰略에 있어서 特定要素를 결정하기 위해 專門家와 初步者의 比較 시도, 戰略選定에 대한 課業特性의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 認知型 (Cognitive Style)

HIP會計硏究의 세번째 接近方法은 認知型이다. 이 연구에서는 意思決定者의 判斷特性이 情報處理에 있어서 意思決定規則의 特性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Schroder, Driver, Streufert의 著書 Human Information Processing에 기초를 두고 있다.[62]

이 接近方法에서는 意思決定者의 情報處理 Style에 의해 意思決定者가 분류되고 個個의 意思決定者의 Style에 가장 적합한 情報시스템의 設計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관해서는 前述한바와 같다. 최근 認知構造와 意思決定行動사이의 相互作用은 물론 課業特性과 認知構造의 重要性을 중심으로하는 연구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

60) 鄭憲錫, 監査意思決定의 人的情報處理에 관한 考察, 經營論集 제 4 집, 關東大學 企業經營硏究所, 1985. 3. p.163.

61) John W. Payne, Myron L. Braunstein, John S. Carrol, "Exploring Predecisional Behavior : An Alternative Approach to Decision Research,"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February 1978, pp.17～44.

62) Libby and Lewis (1977), ibid, p.260.

Ⅴ. 結 論

지금까지 HIP에 관한 心理學的 硏究結果와 그것을 會計에 導入한 Revsine과 Miller의 연구논문 및 HIP會計의 4가지 硏究方法을 고찰해왔다.

Revsine과 Miller는 類推(analogy)라는 비교적 論證力이 약한 論理展開方法을 會計學에 적용하려고 했기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檢證하기 위한 實證的 硏究가 충분히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lens 모델 接近方法은 前述한바와 같이 意思決定者가 一定한 情報에 기초를 두어 어떤 종류의 결정을 하는 process를 명백히 하려고 한다. 더구나 이 方法은 "意思決定 process는 어떤 情報가 意思決定者의 行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分明해진다"라는 前提에 기초를 두고 있고 또한 "意思決定이란 어떤 事象을 일정한 情報에서 豫測하는 것이다"라는 命題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命題는 현실사회에서 先驗的(A priori)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意思決定 process 중 投入과 産出 중간에 있는 情報處理는 black-box로서 취급되어왔다. lens 모델은 이러한 black-box를 해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貢獻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確率的判斷接近方法은 意思決定에 있어서 確率의 修正, 利用 및 評價를 연구하는데 有用하며 確率推定値에 있어서 誤謬에 대한 意思決定의 感受性(sensitivity)을 分析하고 HIP에 있어서의 限界를 극복하기위해 意思決定援助(decision aids)의 開發이 필요하다.

意思決定前行動接近方法은 어떻게 문제가 제시되며 해결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硏究狀況效果가 課業의 屬性과 상호작용하는 長短期 記憶의 구조와 같은 기본적인 認知特性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

認知型接近方法은 여러가지 相異한 意思決定方式에 가장 有用한 情報시스템 및 財務報告樣式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준다.

HIP會計硏究의 궁극적인 목적은 意思決定의 理解와 評價 및 改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4가지 接近方法의 合併을 통해 意思決定硏究에 있어서 ①基礎的 認知過程理論의 構築化와 ②外部的妥當性과 結果의 應用에 대한 관심이 增加되는 두가지 방향으로 연구조사가 전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金亨柱, 會計基礎理論, 法文社, 1985.
- 南相午, 會計理論, 日新社, 1982.
- 李覓鎔, 李泰炯, 鄭福善 共譯, 心理學槪論 － 人間의 情報處理論 －, 法文社, 1974.
- 安逸灘, 重要性, 公示決定에 있어서 專門監査人의 判斷에 관한 硏究(I), 祥明經營論集, 제 2 집, 祥明女子大學 經營學會, 1985.11.
- 鄭憲錫, 監査意思決定의 人的情報處理에 관한 考察, 經營論集 제 4 집, 關東大學企業經營硏究所, 1985.3.
- 平松一夫, 外部情報會計, 中央經濟社, 1982.
- 佐藤康男, 管理會計と 行動科學： その意味と 方法論的 特徵, 經營志林 제 21 권 제 1 號, 早稻田法政大學 經營學會, 1983.
- Lawrence S. Revsine, Data Expansion and Conceptual Structure, The Accounting Review, Oct. 1970.
- _____, Replacement Cost Accounting, Prentice-Hall Inc., 1973.
- Henry C. Miller, Environmental Complexity and Financial Reports, The Accounting Review, Jan. 1972.
- Michael J. Driver and Theodore J. Mock,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Decision Style Theory and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75.
- Henry Assael,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 Kent Publishing Co., 1984.
- George H. Sorter, An Events Approach to Basic Accounting Theory, The Accounting Review, Jan. 1969.
- Robert Libby & Barry Lewis,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in Accounting : The State of Art,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2, No.3, 1977.
- _____,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in Accounting : The State of Art in 1982,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7, No.3, 1982.
- AAA Committee on Accounting Valuation Bases Report of the Committee on Accounting Valuation Bases, The Accounting Review Supplement, 1972.
- Robert Libby, Accounting and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 Theory and Applications, Prentice-Hall Inc., 1981.
- Robert H. Ashton,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in Accounting, AAA, 1982.

- Russell M. Barefield, The Effect of Aggregation on Decision Making Success : A Laboratory Stud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72.
- James R. Boatsman and Jack C. Robertson, Policy-Capturing on Selected Materiality Judgement,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74.
- Edward J. Joyce, Expert Judgement in Audit Program Planning, Supplement of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976.
- John W. Payne, Myron L. Braunstein, John S. Carrol, Exploring Predecisional Behavior : An Alternative Approach to Decision Research,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February 1978.